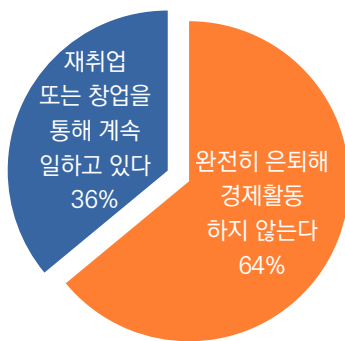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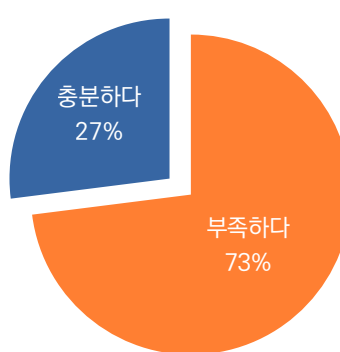
[베이비붐 1세대(1955~1963년생)의 노후 실태] 베이비붐 1세대 73%, 현재 노후 생활비 부족!

- 베이비붐 1세대(1955~1963년생)에 대한 조사를 최근 문화일보 창간 34주년 특집으로 진행했는데, 이중 이들 그룹의 노후 실태를 살펴본다.
- 현재 경제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베이비붐 1세대 3명 중 2명(64%)은 '완전히 은퇴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'고 응답했고, 나머지 36%는 '재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'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노후 생활비는 '부족하다'(73%)는 응답이 70%를 넘어 섰는데, 베이비붐 1세대의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현재 경제활동 여부 (베이비붐 1세대
(1955~1963년생, 62세~70세))



[그림] 현재 노후 생활비 (베이비붐 1세대
(1955~1963년생, 62세~70세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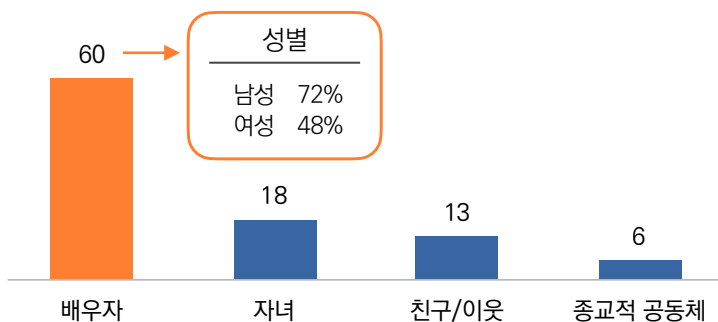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문화일보, 베이비붐 1세대 73.9% "은퇴 준비 부족했다"[창간 34주년 특집], 2025.10.30. (<https://www.munhwa.com/article/11543178>)
(조사개요: 1955~1963년 출생 베이비붐 1세대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10.17.~10.22., 엠브레인퍼블릭)

은퇴 후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, '배우자'가 압도적 1위!

- 은퇴 후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로는 '배우자'가 60%로 압도적으로 높았고, 이어 '자녀' 18%, '친구/이웃' 13%, '종교적 공동체' 6% 순이었다.
- 특히 '배우자'를 꼽은 비율은 남성(72%)이 여성(48%)보다 훨씬 높아, 은퇴 후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.

[그림] 은퇴 후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 (베이비붐 1세대(1955~1963년생), 상위 4개, %)



※출처 : 문화일보, 베이비붐 1세대 73.9% "은퇴 준비 부족했다"[창간 34주년 특집], 2025.10.30. (<https://www.munhwa.com/article/11543178>)
(조사개요: 1955~1963년 출생 베이비붐 1세대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10.17.~10.22., 엠브레인퍼블릭)